

전쟁·악천후...지구촌 크리스마스 악몽

러, 우크라 헤르손 무차별 포격
미, 겨울폭풍 최소 30명 숨져
유럽 공공부문 파업 사태 확산

크리스마스 연휴 지구촌 곳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의미가 무색하게도 전쟁과 갈등, 악천후와 각종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 이로 인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일부 미사일이 헤르손 자유광장 인근의 슈퍼마켓 바로 옆에 떨어지면서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판매하던 여성 상인, 트럭에서 짐을 내리던 고객, 행인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손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약한 동부 돈바스를 육로로 잇는 요충지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이곳을 빼앗겼다가 지난달 탈환했고, 이후 러시아의 기반시설 공습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헤르손 당국은 전날에도 약 74차례에 걸친 포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격을 받아 불타는 차량, 거리에 널브러진 시신, 파괴된 건물 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이것은 테러이며, 위협과 패락을 위해 죽이는 것"이라고 러시아군을 비난했다. 미국에서는 폭설과 폭설, 강풍을 동반한 겨울폭

풍으로 크리스마스 연휴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 NBC방송은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시작된 겨울폭풍으로 미 전역에서 최소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고, AP통신은 사망자가 최소 28명이라고 보도했다. 최대 110cm의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서 사망자 4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전체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이로써 버펄로가 포함된 이리 카운티의 사망자는 모두 7명이 됐다. 이 중 최소 3명은 폭설로 응급요원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 나머지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버펄로 시내 일부에서는 눈더미가 최대 3m 높이까지 쌓이면서 일부 주택과 자동차가 눈에 파묻혔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의 운행도 마비된 상태다. 오하이오주에서는 50중 추돌사고를 비롯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와 감전 사고 등으로 10명이 숨졌고, 미주리주와 캔자스주에서도 운전자 4명이 각기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며, 웨스트팜비치 등 플로리다 남부에서도 기온이 6도도 내려가 추위에 마비된 이구나들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신고가 잇따랐다. 미 중서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평원 일대에서 시작된 이번 겨울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크

리스마스 이브인 전날 미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488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데 이어 이날도 1800편 이상 무더기 결항됐다. 강추위 속 정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전 피해 가구는 전날 180만 가구에서 이날 오후 20만 가구 미만으로 폭 떨어졌다. 현재 메인주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정전 규모가 8만 가구로 가장 크다. 유럽에서는 공공부문 파업 사태가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국 내 6개 공항의 출입국 업무 담당 직원들이 공공부문 파업 대열에 동참을 결정했다. 이들은 성탄절 연휴 이튿날인 26일까지 업무를 중단, 잠시 복귀했다가 28~31일 재차 파업할 예정이다. 영국의 철도해운노조(RMT) 파업으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등지의 철도 운행편도 대거 취소됐다. 같은 날 프랑스의 경우 열차 기관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나흘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철도공사(SNCF)는 이번 주말 열차 5대 중 2대꼴로 취소가 불가피해 최소한 승객 20만 명이 여행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연휴 전날인 23일 60대 백인 남성이 쿠르드족을 향해 벌인 혐오범죄로 3명이 목숨이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AFP 통신과 프랑스 앵포 등 매체가 보도했다. 용의자는 파리 한복판의 쿠르드족 문화센터 등을 다니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체포된 후에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탈레반 여성 대학교육·NGO 활동 금지

인도주의 국제 구호 활동 차질
유엔·미국 등 국제사회 비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대학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에서 여성이 활동하는 것까지 금지했다. 이같은 조치로 겨울철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AP·AFP·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 해외 언론은 24일(현지시간) 탈레반 정권이 이날 경제부 장관 명의로 구호단체 등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명령과 함께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활동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탈레반 정권은 서한에서 국내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하잡 착용에 관한 샤리아(이슬람 율법) 및 다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고들이 접수됐으며 추가 통보 때까지 모든 단체는 여성의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인권단체 등은 이

명령은 여성 탄압이자 인권 침해로서 아프간 내 구호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탈레반 정권은 지난 20일 고등교육부 명의로 공·사립 대학에 보낸 서한에서 여학생들의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들의 NGO 활동을 금지한 이번 명령이 외국인 여성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제 NGO 두 곳은 이번 통보를 받았으며 이 조치가 구호 활동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케어(CARE),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NRC) 등 국제구호단체 3곳은 25일 "여성 스태프 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여성 등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며 아프간 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남성과 여성이 아프간에서 동등하게 인명 구조 지원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국, 코로나 감염 일일통계 발표 중단

저장성 하루 감염자 100만명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 격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25일부터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건위는 25일 홈페이지에 올린 '실명'을 통해 "코로나19 일일 정보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건위 홈페이지에는 이제까지 현지시간 오전 9시 공개해온 전날의 신규 감염자 통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 위건위는 "앞으로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참고 및 연구에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건위의 이같은 조치는 위건위의 통계 발표가 실제 감염자 및 사망자 상황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는 지난 7일자로 정지적 전수 PCR 검사를 중단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통계는 발표하지 않자 당국이 발표하는 감염자 수와 실제 수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감염 후 폐렴이나 호흡부전으로 숨진 사람만 집계해 발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일 신규 사망자가 '0명'이라고 발표하는 날이 많았던 것도 논란을 불렀다. 이런 가운데 동부 연안 지역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장성 방역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염사례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표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1일경 감염 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수도 베이징도 아직 감염 절정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테슬라 주가 70% 추락...올 역대 최악 성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올해 증시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투자자와 월가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WSJ은 "머스크가 (테슬라가 아닌) 트위터 경영에 집중하면서 테슬라가 (연간 주가 실적 면에서) 사상 최악의 한해를 앞두고 있다"며 "투자자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월가는 테슬라 전기차 수요 둔화에 짜증이 났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주는 전날 1.76% 하락한 123.15달러로 금주 정규장을 마감했다. 지난 16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었다.

테슬라 주가는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거의 70% 추락했고, 올해 들어선 65% 미끄러졌다. 무엇보다 머스크가 지난 10월 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한다는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낙폭은 더욱 커졌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 30일 증가(194.7달러)와 비교하면 이달 들어서만 36% 넘게 하락했다. WSJ은 "테슬라"는 2020년 초 자동차 산업에서 승자 중 하나였다"며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 추락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기업의 급격한 반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서 캐럴 부르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민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지하철역 안에서 시민들이 전통의상을 차려입은 채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0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